

문 대통령 “남은 1년, 쫓기지 않겠다...한반도 평화 ‘마지막 기회’로”

등록 :2021-05-10 11:28 수정 :2021-05-10 12:29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위해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남은 임기 1년을 한반도에 평화를 여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고 했다. 앞으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에 대해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한 연설을 통해 “한반도에 대립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여는 것은 8천만 겨레의 염원”이라면서 “남은 임기 1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북정책 검토를 끝낸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대화를 복원할 길을 찾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외교를 통해 유연하고 점진적·실용적 접근으로 풀어나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5월 하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대북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남은 임기에 쫓기거나 조급해하지 않겠다”면서 “다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갈 기회가 온다면 온 힘을 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최근 북한을 향해 전단을 날린 일부 단체를 향해 강력한 경고를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남북합의와 현행 법을 위반하면서 남북 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부로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통과돼 올해 3월 30일부터 시행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1. 5. 12.

문 대통령 “남은 1년, 쫓기지 않겠다...한반도 평화 ‘마지막 기회’로” : 청와대 : 정치 : 뉴스 : 한겨레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 1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다”면서 “모든 평가는 국민과 역사에 맡기고, 마지막까지 헌신하겠다.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연설을 마무리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관련기사

문 대통령 “실수요자 부담 완화할 ‘정책 지원’ 확대하겠다”

문 대통령 “차질없는 백신 접종, 정당한 평가 받아야”

문 대통령 “부동산만큼은 할 말이 없다...정책 보완할 것”

문 대통령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아무말 없는 게 바람직”

문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재용 사면, 쉽게 결정할 사안 아냐”
